

“전교생 9명 이하 학교 자발적 통합 추진한다”

전북교육청, 내년에 추진… 우선 10곳·권장 검토 3곳 등 총 13곳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전교생 9명 이하의 아주 작은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 기준 전교생 9명 이하 학교수는 초등학교는 409곳 중 17곳, 중학교는 208곳 중 13곳이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20곳으로 전망했다. 이후 초등학교는 2027년 25개교, 2028년 33개교, 2029년 36개교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정주 행정과장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을 언급하며, 내년에 전교생 9명 이하

학교 10곳(우선 검토)과, 1개면에 2개교 이상인 전교생 20명 이하 초등학교 3곳(권장 검토)에 대해 자발적인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은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되, 아주 작은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알려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침이다. 추진 대상학교로는 우선 검토 10교와 권장 검토 3교 등 총 13개교다. 다만, 초등 1면1교, 통합운영학교, 농촌유학 운영학교 등은 제외된다.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1~2월 추진 대상 검토 및 계획 수립, 3~5월 이해관계자 설명회, 6~7월 학교통합 의견

수렴, 8~9월 학교통합 계획수립, 10~12월 예산 확보 및 조례 제정 순이다. 1개 지역에 3개 학교가 있는 거점형 중학교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의 별도 절차 이행이 추가된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교 통합은 아주 작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것”이라며 “학교 통합에는 전적으로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통폐합 된 학교는 군산 4개교, 김제 1개교, 임실 2개교, 고창 1개교 등 총 8개교다. /장은성 기자

학급당 학생수 20명 초 3까지 확대 적용

전북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급 격차 해소 목적

‘학급당 학생수 20명’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정주 행정과장은 1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는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더불어,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 1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초등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는 도내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교사 정원 감축 등을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장은성 기자

특히 전주만성초, 전주온빛초, 전주양현초 등 일부 개발지구 학생 수 20명 기준을 지난해 1학년부터 올해 1~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수를 하향 조정했다. 다만, 전주자연초, 전주화정초, 전주효천초, 군산금빛초 등 4개교는 제외됐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적용은 초등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생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수 추이, 교원 수급 상황, 교실 여건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초등 교육과정 주요 정책 이해력 향상

전북교육청, 설명회 열고 학력신장 등 정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25 초등 교육과정 관련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초등 교육과정 관련 정책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초등학교장 400여 명과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기초학력,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기초학력 정책으로는 △1수업 2교사제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 튜터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안내했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는 초등어휘사전 1600, 초등어휘력대회, 초등화력신장시스템(TI 코스웨어, 학습플래너, 중위권 교과보충), 학력신장 연구학교 등을 소개했다. 학교평가는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선정된 필수 지표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현



11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열린 ‘2025 초등 교육과정 관련 주요 정책 설명회’.

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내 모든 초등학교의 정책 참여율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초등 교육과정, 수업, 학생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학생평가와 관련해, 총괄평가 대상 학년을 초등 3학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형 CBT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한 문제 유형을 활용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학생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운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산학협력단 토스트애니메이션과 협약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일 대학본관에서 ㈜토스트애니메이션과 스마트 인형 개발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토스트애니메이션 김애립 대표와 장인복 이사, 전주대학교 교에서는 김상진 산학협력단장, 고경순 예술심리치료학과장, 김영수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주대학교의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협력 △심리치료 콘텐츠 개발 및 심리치료 효과 검증 및 연구 협력 △공동 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등이다. ㈜토스트애니메이션은 전북 유일의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로, 스토리텔러와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돼 캐릭터 개발, 3D 애니메이션, 브랜딩을 지원하고 있다. 단순히 콘텐츠를 개발을 넘어 유익하고 따뜻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전주대학교와 심리치료 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인형 개발 등에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산학협력단 김상진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학교와 심리치료 콘텐츠 개발 및 연구 협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교육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 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트애니메이션 김애립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 시와 함께하는 기초 웹 코딩교육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과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기초 코딩 및 웹 개발자 양성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민)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에서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정동원)에 참여 학과 및 학부 학생들 중 저학년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웹 기초와 응용, ILM을 활용한 웹 개발 등의 교육을 통해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부서 직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돕기 위한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 행사 눈길

전북교육청, 부서 직원들 간 소통의 시간 마련…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의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부서 직원간의 소통과 공감을 돕기 위한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실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등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본청 참조내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이 함께하는

2025년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부서 내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청렴으로 활짝 피자데이’를 기획했다”며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갑질 없는 청렴한 캠퍼스 문화 만들어가자’

전북대, 선포식서 청렴 의지 다짐 인간의 존엄·가치 최우선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 다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갑질 없는 청렴한 캠퍼스 조성’ 선포식을 가졌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총장을 비롯해 학부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과 11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행사에서는 이준화 연구부총장과 최기혁 총무과장 등이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서약서 작성을 통한 청렴한 대학 문화 조성을 약속했다. 이에 전북대는 선언문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기관 이기주의



1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대회의실에서 ‘갑질 없는 청렴한 캠퍼스 조성’ 선포식이 열렸다.

방지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진 청렴 서약에서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이해충돌 방지 △부패 행위에 대한 엄중 처리 등을 약속했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 내 갑질을 근

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아 청렴 서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청렴 실천이 대학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분석대회 개최

내달 한달간 온라인 접수… 상금 규모 1억1400만원으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7회 교육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학생부문(데이터 분석)과 일반부문(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상품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이 대회는 개인이나 팀(최대 3명까지)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금 규모를 6,400만원에서 1억1,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수상자에게는 노트북, 태블릿, 무선이어폰 등 부상도 함께 지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1~30일 대회 누리집(https://edss.mo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64개 수상팀(또는 개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올해 지역특성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 원광대 자동차부품·전장기술사업단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자동차부품및전장기술사업단이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2025년도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해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원광대 자동차부품및전장기술사업단은 2024년 사업결과 및 2025년 사업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부터 13년 연속

으로 이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 선정에 따라 자동차부품 및전장기술사업단은 기계공학 및 모빌리티전공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참여 학생을 모집해 전원에게 1인당 취업지원금 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